

##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에 나타나는 전염병과 근대정치\*

박 선 주\*\*

### [초 록]

본 연구는 메리 셸리의 소설 『최후의 인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세기 초 셸리가 근대 민주주의 정치를 조망하는 시각과 그 의미를 검토한다. 이 작품은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염병이라는 상징을 통해 평등이라는 근대정치의 원칙과 고아라는 근대정치의 주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철저한 사유를 보여준다. 소설의 등장인물은 고아 혹은 고아형 인물로 등장하여 단독성이라는 근대개인의 이상을 구현하며 이들은 형제애와 우정으로 평등한 연대와 정치적 낙원 건설을 추구한다. 이 고아들이 ‘고아-됨’을 버리고 국가의 아이들로 변모하여 서구제국의 논리를 따라 비서구로의 침략과 정복을 수행하자, 전염병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여 이들을 다시 고아로 만든다. 전염병은 또한 서구의 국가/제국이라는 보편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주제어: 메리 셸리, 『최후의 인간』, 근대 민주주의 정치, 평등, 전염병, 고아  
Mary Shelley, The Last Man, Modern Democracy, Equality, Plague, Orphan

을 비트는 방식으로 모든 이가 죽음으로 평등해지는 절대적이고 민주적인 보편성을 구현한다. 보편성이란 결국 죽음을 상정하지 않고는 개념화될 수 없으며, 근대민주주의의 평등원칙에는 죽어가는 생명의 형상이 뚜렷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고아라는 근대주체 역시 인간이라기보다는 초인 혹은 괴물의 형상에 더 가깝다. 쉘리는 전염병과 종말이라는 비극적 서사를 통해 근대, 근대국가, 근대개인의 구성 밑에 근원적으로 죽음, 폭력, 정복, 괴물, 비인간, 전근대 등이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으로 얽힌 채 자리 잡고 있는가를 제시한다.

## 1. 들어가는 말

전염병은 인간을 고립시킨다. 전염의 공포라는 위협은 개인, 사회, 공동체 사이에 기묘한 틈을 내어, 개인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머뭇하는 순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최후의 인간』(*The Last Man*, 1827)은 인류가 전염병으로 멸종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SF적 소설로, 개인과 사회(공동체) 사이에 벌어진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부터 (혹은 균열로서) 근대개인이라는 정치적 주체의 의미를 다시 사유한다.

사실 세계의 종말이라는 주제는 19세기 초 당대 유럽 문단에도 크게 유행했던 것이기도 하며, 이는 실제로 시대를 망라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각기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공포들을 반영해왔다.<sup>1)</sup> 그러나 셸리의 SF적 종말서사를 움직이는 주요 동인은 SF에 흔히 등장하곤 하는 핵, 로봇, 외계침공 등 외부적으로 상상된 위협에 대한 공포가 아니다. 흥미롭게도 『최후의 인간』은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1) 19세기 유럽 문단에서 종말이라는 주제가 표현되었던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박미경, 「영국 낭만주의의 정치성」과 Morton D. Paley, “*The Last Man*: Apocalypse Without Millennium” 참조.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염병이라는 상징을 통해 평등이라는 근대 민주주의 정치 원칙 그 자체를 공포로 묘사한다. 셸리는 이미 『프랑켄슈타인』에서 완벽한 단독자인 근대개인이 내포하는 괴물성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근대정치와 공포의 복잡한 관계를 그려내었다. 『최후의 인간』은 그 연장선에 놓여있다. 이 소설은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완전히 홀로 남겨지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근대정치의 탄생이 (혹은 그 붕괴가) 야기하는 공포를 탐구한다. 이 논문은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이 프랑스 혁명 후 근대개인과 근대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고, 이 소설이 전염병이라는 상징으로 서구 국민국가와 근대정치를 문제화하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며, 근대정치에 대해 셸리의 비판적 사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 2. 근대개인의 표상으로서의 고아와 그들의 낙원

『최후의 인간』은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300여년이 지난 2090년 전후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소설의 설정상 영국은 2090년 무렵에야 비로소 절대왕정에서 공화주의 체제로 막 전환되었으며, 이 새로운 정치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 왕정복고주의, 전통적 영지귀족 등의 세력들이 팽팽히 경합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원인불명의 전염병이 만 7년 동안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 등으로 퍼지고 결국 지구전체를 휩쓸어 모든 인간을 사멸시킨다. 최후에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인간 라이오넬 버니(Lionel Verney)는 소설의 화자로서 이 고통스러운 상실과 소멸, 필연적인 고립의 과정을 회고의 서사로 풀어낸다.

이 소설에서 전염병의 전파경로는 미상이다. 접촉이나 세균, 비말에 의한 것은 분명 아닌 것으로 제시되며 아마도 공기 혹은 바람에 의한

감염이라고 추측된다. 그렇기에 이 병은 위생 상태나 거주 지역, 빈부 격차 등에 상관없이 모든 이, 모든 집단, 모든 국가, 모든 체제를 공격하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공평한 방식으로 작동한다.<sup>2)</sup> 즉 평등이라는 근대적 원칙에 의해 역설적으로 근대적 개인, 공동체, 정치가 모조리 파괴되는 것이다. 전염병이라는 상상을 통해 펼쳐지는 이 기괴하고 역설적인 파괴의 의미는 사실 혼란스럽다. 비평가들은 이를 혁명 후 19세기 유럽 공화주의에 대한 공화주의 내부로부터의 자기비판적 시선으로 읽기도 하고, 메리 셸리의 자전적인 사실과 연결하여 어린 자녀들과 남편, 벗들을 차례로 잃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상실감과 고통에 관한 파국 서사로 보기도 한다. 앤 K. 멜러를 비롯한 몇몇 비평가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전면적인 파괴 이후 셸리가 어떤 재생의 가능성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소설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반-정치적” 성격을 띤다고 말한다.<sup>3)</sup> 그러나 인간이라는 종의 소멸과 그로 인한 질은 절망의 정조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 이유로) 이 소설은 근대정치와 근대공동체, 그리고 근대개인에 관한 작품이다. 근대라는 사상 그 자체를 근원까지 파고들어가 철저히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최후의 인간』은 무엇보다도 혁명 후 세상에서 정치가 구성되는 근대적 양상에 주목하며, 특히 프랑스 혁명과 근대정치의 가장 중요한 발명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 ‘근대개인’의 구성과 성격, 작동의

2) Anne McWhir는 질병 전파에 대한 당대의 의학이론들에 비추어 이 작품을 설명하고 있으며 셸리가 격리나 봉쇄로 통제 가능한 접촉감염보다는, 원인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더 민주적이라 할 수 있는) 공기감염 이론으로 소설 속 전염병을 상상한다고 주장한다. “Mary Shelley’s anti-contagionism: *The Last Man* as ‘fatal narrative.’” *Mosaic: a Journal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Literature* 35 (2), pp. 23-28 (2002).

3) Anne K. Mellor (1978/79), *Mary Shelley: Her Life, Her Fiction, and Her Monsters*, p. 164. Lee Sterrenburg, “*The Last Man*: Anatomy of Failed Revolution.” *Nineteenth Century Fiction* 33, p. 328.

양상에 깊은 관심을 쏟는다. 근대개인은 독자적이며 자율적이며 온전히 홀로 선 존재로 개념화되며 19세기 문학에서는 흔히 고아, 또는 고아형 인물로 표상되곤 하는데, 이는 린 헌트(Lynn Hunt)가 말하듯 프랑스 혁명기의 집단무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버지라는 강력한 부권 위에 형성된 기존 가족모델은 새로운 근대적 가족모델에 의해 대체되는데, 이는 아버지(왕)를 죽이고 스스로 고아가 된 자들이 서로 형제애(fraternity)로 연대하여 구성하는 평등한 가족공동체이다.<sup>4)</sup> 고아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해방된 근대적 주체의 기표이며, 아버지의 권위 위에 세워진 봉건적 공동체를 해체하고 형제애라는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평등한 연대와 공감으로 근대적인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근대개인-시민의 정치적 의지를 상징한다.<sup>5)</sup>

셸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또 한편 가련하고 고독한 존재인 고아의 다양한 양상을 제시하면서 이 근대적 기표의 정치적 성격, 가능성, 한계를 폭넓게 탐색한다. 『최후의 인간』에서 주요 인물들이 다양한 형태의 고아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다. 라이오넬과 퍼디타(Perdita) 남매는 부모의 죽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험난하고 외로운 삶을 영위한다. 이 “고아 아이들”은 “외지인이고 거지였으며 친구 하나 없는 존재로 아주 적은 양의 양식도 남이 베풀어야만 얻을 수 있”는 “가난한 이들 중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다(12).<sup>6)</sup> 라이오넬은 철이 들자 자기 존재를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고아”로 인식하며 컴벌랜드 고원의 양치기로 떠돌면서 “늑대로부터 태어난 로마의 창시자만큼이나 거칠고 야만적”으로 살아간다(13). 삶이란 적자생존일 뿐이

4) Lynn Hunt (1992), *The Family Romance of the French Revolution*. Berkeley and LA: California UP.

5) 고아라는 상징과 근대국민국가의 복잡한 길항관계에 대해서는 『고아, 족보 없는 자: 근대, 국민국가, 개인』 참조.

6) Mary Shelley (1994), *The Last Man*, New York and London: Bantam Books. 이 소설의 인용에 대한 번역은 필자 자신의 것이다.

며 따라서 인간보다는 동물과 야수에 더 가까운 성정을 갖게 된다.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 경을 모델로 하여 창조된 인물인 레이먼드 경(Lord Raymond) 역시 고아이다. 그는 몰락한 귀족가문의 “유일한 자손”이지만, 귀족이라는 지위를 제외하고는 부모로부터 어떤 물질·정신적 유산도 받지 못한 자이다(40). 잔인한 정복욕구와 섬세한 감정을 모두 가졌으며 야망에 불타면서도 의리와 고결함을 추구하는 레이먼드 경은 모순적이고도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로서, 고아-근대개인이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불투명한 내면성을 구현한다. 레이먼드 경과 비슷하게 불투명하고 복잡한 인물인 에바드네(Evadne) 역시 문자 그대로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형 인물이다. 그리스 왕자인 에바드네의 아버지는 소설 속에 아예 등장하지도 않으며 에바드네는 그리스 왕녀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는 처지이다. 게다가 에바드네는 나이 어린 여성임에도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순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선택하고 책임진다. 레이먼드 경에 대한 사랑이 좌절되자 그리스로 돌아가 콘스탄티노플에 자리 잡은 상인과 결혼하며 왈라키아 공국을 정복하려는 야망을 갖고 러시아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은 에바드네 자신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온전히 감당한다.

애드리언(Adrian)와 아이드리스(Idris) 남매는 스스로 고아가 되기로 선택한 인물들이다. 이 남매는 영국 왕의 자녀들로, 영국을 왕정국가에서 공화국으로 전환하면서 스스로 왕위를 포기한 아버지와 이를 심정적으로 용인하지 못하는 어머니 아래에서 성장한다. 왕의 별세 후 공작부인에서 왕비로의 복원을 꿈꾸는 애드리언의 어머니는 애드리언과 아이드리스에게 정치적 계획과 혼인을 강요한다. 하지만 애드리언은 공화주의자로서 확고한 정치적 원칙을 가지고 어머니 공작부인과 정치적으로 결별하며 아이드리스 역시 사랑하는 라이오넬과 결합함으로써 딸의 혼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머니로부터 탈출한

다. 아이드리스의 이러한 결단에는 홀로 서겠다는 “대담함과 솔직함”이 있고 그것은 “그녀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겠지만 그녀 자신의 자유는 신성하고 굳건히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75).<sup>7)</sup>

소설 속 고아들은 가련하고 버림받고 고립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자유롭고 해방된 주체로서 왕정 이후 혼란한 근대 사회와 정치, 그리고 근대적 서사와 삶을 주도한다. 이들은 우애, 형제애, 박애정신으로 서로 평등하게 연대하면서 근대 민주주의 공화국의 토대인 ‘인간’(시민)이라는 정치적 보편을 만들어 나간다. 이 보편 위에서 근대적 연대(우정-형제애)와 새로운 체제(인간-시민-민주주의)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대부터 얽힌 인연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을 가진 라이오넬에게 애드리언은 “부드러운 서풍”과도 같은 태도로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려고 태어났”다고 말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정의 끈”이 그들을 “이제부터 하나로 묶어”줄 것이라고 말한다(25). 라이오넬은 야생의 무질서 속에 동물적 본능으로만 살아가다가 애드리언이 내민 “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형제애라는 사회적 관계를 획득하게 되고 비로소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 난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인간이기를 시작하였다. 동물과는 다른 지적이고 도덕적인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신성한 경계선 안으로 편입한 것이다”(29).

고아들 간의 평등하고 자율적인 형제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우애와 우정은 남녀 간의 사랑에도 적용되며 가장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

7) 이 밖에도 이 소설에는 다양한 형상의 고아들이 등장한다. 라이오넬의 여동생 퍼디타와 레이먼드 경이 결혼하여 낳은 딸인 클라라도 가련한 고아이다. 이 부부는 본인들이 각각 고아로 자란 성장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동딸 클라라를 고아처럼 방치하며 그리스전쟁 후에는 부모가 둘 다 사망하여 클라라는 문자 그대로 고아가 된다. 또한 줄리엣이라는 인물은 부모의 부당한 권위와 통제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고아이다. 공작의 딸인 줄리엣은 부모의 반대로 연인과 헤어지지만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후에야 연인과 상봉하여 짧게나마 행복을 성취한다.

복한 사회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는 고아들에게 “친절하고 동감하며, 부드러운” 감정적인 끈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소속감을 부여하며 더 큰 ‘우리’로의 고양을 유도한다(28). 깊은 공감과 이해, 감정적 유대감과 사랑 위에 성립된 가족 공동체는 지상의 낙원으로, 즉 신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 스스로 건설해야 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로 제시된다. 라이오넬과 아이드리스가 원저숲에서 꾸리는 가정은 바로 인간이 세속적 가치 위에 세운 근대적 지상 낙원의 성공적 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아무 즐거움 없이 사회라는 길 없는 미로 속을 걸어야 할 때 그 심연으로부터 이끌어 낙원으로 인도해주는” 일종의 “길잡이”인 것이다(64). 게다가 원저숲이라는 낙원은 레이먼드 경, 퍼디타, 애드리언 등 벗과 동지들이 모여 더 큰 사회적 연대를 지어내는 거점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라이오넬, 아이드리스, 퍼디타, 레이먼드 경, 애드리언 등은 원저숲이라는 “선함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선택된 공간”에 모여서 원죄 이전의 아담과 이브처럼 “여름 곤충처럼 명랑하고 아이들처럼 장난가득하며” “이 사랑스러운 숲에 은둔하여 평온함 속에 살아간”다(237-8).

사실 『최후의 인간』은 낙원(혹은 실낙원)에 대한 소설이기도 하다. 제목부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에 대한 명백한 패러디이며, 소설의 내용도 고아로 홀로 선 인간들이 순전히 그들만의 힘으로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는 과정과 그 실패에 관한 이야기이다. 원저숲이라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보다 큰 규모의 근대적 낙원을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정치적 시도들에게 일종의 원형으로 기능한다. 애드리언의 정치적 행보 역시 원저숲이라는 모델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애드리언은 귀족들의 권력, 재산, 특권을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영국에 완벽한 공화정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45). 많은 평자들이 지적하듯 애드리언은 메리셸리의 남편 P. B. 셸리와 외의 강한 상동성을 갖는 인물로 이 소설에서 메리 셸리의 “그 누구에



도 비견할 바 없는 완벽한 동반자” P. B. 셸리의 낭만주의 사상을 체현하고 있다(4). 애드리언은 “인간이 입고 있는 육신이라는 재료와 그 재료의 작동 법칙이란 틀림없이 가장 인자한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인간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행복임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선택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다. 애드리언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행하자. 그러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란 무한하며 죽음의 화살을 무디게 하고 아픈 자의 병석을 위로하며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료인 인간을 돕기 위해 힘을 쓰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재 의미가 대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고아-근대개인들이 서로를 동료로 인식하고 돕고 의지하는 행위가 낙원 건설에 핵심적이라고 주장한다.

라이오넬도 애드리언과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그는 저술과 지성의 세계를 통해 동료 인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낙원-공동체의 가능성을 몸소 경험한다. 라이오넬은 책을 쓰면서 인간에 대한 공감과 감정적 유대감이 커져감을 느끼며, 이 활동이 그를 “동료 인간들에게 단단히 연결해주는 귀중한 끈”임을 깨닫는다. 인간은 책을 통해 창조성과 상상력, 관심과 흥미, 지성과 공감, 즉 지적 연대라는 새롭고 특별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165). 이는 라이오넬을 “이전에 걷던 어두운 길로부터 밝은 한낮의 햇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인류라는 큰 길로 이끌어 주고, [그를] 세계의 시민으로, 불멸의 영예를 꿈꿀 수 있는 후보로, 동료 인간들의 칭찬과 공감을 열망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준”다(165).

셸리 부부 — 혹은 애드리언/라이오넬의 짝이 제시하는 낙원에 대한 비전은 물론 지나치게 이상적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이런 우려를 실제로 표명하며 애드리언 역시 이를 모르지 않는다. 그도 삶을 몰아가는 주요한 힘이 우정과 형제애보다는 “마음 속에 거칠게 이는 야망, 열정, 세상의 유행”임을 안다. 그러나 “인간에게 운명을 통제할 수 있거나, 적어도 불어오는 바람에 대응하여 항해할 수 있는

분명하고 실행가능한 원칙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운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신념 또한 분명하다(68, 필자강조). P. B. 셸리를 비롯한 19세기 영국 낭만주의자들에게 ‘바람’은 정치의 혁명이고 사회의 쇄신이며 기존질서에 대한 전복이다. 즉 바람이란 한편으로는 분명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 인간 의지 밖의 — 힘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은 인간만의 힘인 것이다.<sup>8)</sup> 따라서 애드리언이 꿈꾸는 고아들의 낙원은 인간의 힘, 더 정확히 말해 고아들의 정치적 연대가 만드는 힘에 대한 낙관적 비전이다.

그러나 낙원(그리고 바람)에 대한 메리 셸리의 서사는 복잡하고 양가적이다. 바람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회의가 교차하며 공존하는 것이다. 이 소설이 작가 당대로부터 300년 후의 세계를 상상하는 미래 SF임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에서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상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단 하나 새로운 기술로서 등장하는 것은 바람을 이용한 풍선행 열기구이다(73). 미래에 바람을 완전히 통제는 못해도 적어도 인간의 편리에 맞게 이용하는 기술이 발달했을 것이라는 셸리의 예측에는, 분명 바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작품에는 바람처럼 번지는 전염병의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파괴력 또한 존재한다. 바람이 과연 “부드러운 서풍”이기만 할 것인가, 그 파괴력이 국지적으로만 머무를 것인가, 지상 낙원을 염원하는 인간의 선한 의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가 등 회의적 질문이 서사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다.

8) McWhir는 이 작품이 ‘바람’이라는 상징에 초점을 두어서 실제로 P. B. 셸리의 「서풍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조롱하고 있다고 본다. “Mary Shelley’s Anti-contagionism,” p. 8.

### 3. 고아에서 국가의 아이로: 국가/제국이라는 낙원

‘바람’에 대한 메리 셸리의 양가적이고 복잡한 태도는 현실정치에 대한 묘사에서도 견지된다. 고아가 영원히 고아로 머무르지 않고 낙원 역시 언제까지나 낙원으로 남지는 않는 것이다. 근대 정치와 근대적 공동체의 논리에 따라, 고아-근대개인들은 그들의 ‘고아-성’ 혹은 ‘고아-됨’을 접고 또 다른 형태의 ‘아버지’ 아래로 들어간다. 자유롭고 독립적이지만 고립된 상태를 벗어나 국가라는 아버지의 보호(지배) 안으로 들어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최후의 인간』에 등장하는 고아들은 국가의 아이들이 되라는 근대국민국가의 사회적·정치적 요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 작품의 정치적 지형은 원저술의 이상적 낙원과는 달리 치열한 현실정치의 경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21세기에야 비로소 공화정을 성취한 영국에는 크게 민주주의파, 귀족주의파, 왕정복고파 등 세 계파의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민주주의파의 수장인 리랜드(Lyland)는 공화정체제의 열렬한 지지자이다. 그는 민주주의야말로 개인이 짧게나마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제한적일지라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라고 믿는다(56, 61). 공화주의자라는 점에서 애드리언과 비슷한 입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리랜드와 애드리언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리랜드는 애드리언을 “꿈꾸는, 영원히 꿈꾸는 원저 공이여!”라고 부르며 공상주의자로 취급하고, 애드리언은 리랜드의 민주주의 비전이 극한상황이 오면 “모두가 각자도생”이라는 형태로 쉽게 환원될 수 있음을 간파한다(257). 왕당파에도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한다.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강성파도 있지만 일부 온건파들은 민주주의에서 나타나곤 하는 대중의 변덕스러운 독재와 귀족주의의 전제정치 둘 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50). 레이먼드 경은 이런 온건적 왕당파를 대표한다. 그는 왕정체제의 화려함과 우아함을 선호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화주의 안에 숨어있는 상업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레이먼드 경은 현 상태의 공화정에서는 오직 돈 있는 소수만이 정치적 세력을 독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주의가 공화주의를 조종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게다가 대다수 민중이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천박한 이들의 귀”에는 분명 왕족의 “번쩍이는 화려함과 볼거리”가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60). 귀족주의파도 정치적으로 유효한 세력이다. 리랜드는 이들의 힘을 빼앗는 것에 정치적 생명을 걸지만 뜻하지 않은 전염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귀족세력과 타협해야 한다. 전염병으로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귀족들에게 영지의 일부를 경지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귀족들은 이에 협조하는 대가로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긴다(249).

그런데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당파에는 공통점이 있다. ‘영국’이라는 국가가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정치적 낙원의 궁극적 비전이라는 점이다. 리랜드는 봉건적 귀족주의의 잔재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영국인으로서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쓴다. 국가의 우월성을 전제해야만 그 안의 계급간 평등이라는 사회적 모순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리랜드는 민주주의의 평등 원칙에 의한 사회 재구성이 일견 과격해 보이지만, 영국인은 월등히 우월한 민족이기에 귀족이라는 작위를 없앤다고 하여 영국이라는 국가가 지닌 고귀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영국인은 “요람부터 다른 인간보다 더 우월하기에 저 위쪽에 자리한 우리 국민의 자태에는 자연이 부여한 진정한 고귀함이 이미 뚜렷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234).

왕당파인 레이먼드 경도 마찬가지다. 그는 호국경으로 당선된 후 영국을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는 희망에 가득 차 영국의 문화, 문명, 역사를 재건하고자 하며 갖가지 사회개혁 기획안과 프로젝트 설계에 몰

두한다. 영국사회에서 “가난을 없애고, 더 편리한 운송수단을 만들고 질병을 퇴치하고 노동의 부담을 줄이며 기술과 과학의 빠른 발전을 장려하고 식량 생산과 인간의 요구에 기계가 부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목적은 물론 “영국을 비옥하고 위풍당당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들로 바쁜 와중에 레이먼드 경은 우연히 런던에서 가장 빈곤한 구역을 돌아보게 되는데 낙후된 거리를 보면서 그는 “영국이 낙원이 되려면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라고 탄식한다(113).

그러나 고아들(근대개인)이 국가의 아이들(국민)이 되자, 이들이 애초에 고아라는 표상으로서 추구하던 근대정치의 요체, 즉 평등, 자유, 우애라는 가치에 균열이 생긴다. 라이오넬은 영국을 “거대하고 잘 조종되는 배”(7)라고 표현하는데, 상선으로 비유되는 국가란 곧 제국주의를 의미한다. 상선 안에서 결합되는 국가/제국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우애와 공감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 사회공동체 내부에 역설적으로 정복과 침략,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구성체가 공존함을 보여준다. 레이먼드 경은 국가/제국의 파국적 결합을 구현하는 인물이다. 그는 원저 숲의 낙원에 핵심 멤버이면서도 권력에 대한 야망이 충만하며 왕이건 호국경이건 상관없이 “국가에서 첫 번째 자리”를 추구한다(41). 그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왕이 되면 가장 먼저 “그리스와 연합하고 콘스탄티노플을 빼앗고 모든 아시아를 점령하”겠다고 선언하며 “전사”로서 나폴레옹을 능가하는 영광과 용맹을 칭송받는 위대한 “정복자”가 되고자 한다(59). 그러나 정복과 통치, 지배에 대한 레이먼드 경의 집착과 야망은 실제로 통치라는 메카니즘이 현실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강박증이기도 하다. 레이먼드 경 스스로 “나는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열정이야말로 나의 주인이지, 가장 작은 충동이 나를 지배하는 독재자인 셈”(160)이라고 자인한다. 라이오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엄청난 상상력 속에서 전 지구를 다스리는 그가

스스로를 다스리고자 하면 움츠러”드는 것이다.(59)9)

레이먼드 경이 퍼디타와 꾸린 가정에서 맞는 파국도 국가/제국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호국경인 그는 국립미술관을 건설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하고 이 공모에 설계도를 제출한 에바드네와 재회하게 되는데 결국 이 재회로 인해 퍼디타와의 사랑에는 균열이 난다. 아내로부터의 신뢰를 잃자 레이먼드 경은 자포자기하여 호국경으로서의 임무도 소홀히 한다. 레이먼드 경의 내면에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켜 원저숲, 더 나아가 영국이라는 낙원을 붕괴시키는 이 일련의 사건이, 애초에 영국의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한 국립미술관의 건립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국가의 아이들이 야심차게 기획한 낙원 건설이 결과적으로 고아들의 낙원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본인, 가정, 원저숲 모두가 무너지고 주변의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국가의 아이로서 레이먼드 경의 관심은 이슬람 정복으로 쏠린다. 그는 그리스로 출병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는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에게 이 전쟁은 단순히 그리스의 독립을 돕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모든 여타의 나라가 문명이 라는 측면에서 발전하는 동안 고대의 야만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세력을 철폐하는” 전쟁이고(184), 콘스탄티노플 같은 아름답고 유서 깊은 도시는 야만으로부터 구출되어 마땅히 “천재성, 문명, 자유정신으로 빛나는 그리스 국민에게 되돌려져야한다”는 것이다(186).

서구에서 그리스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 전쟁의 모순적 의미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는 민주주의라는 서구 근대정치를 선제적으로 성취하였던 문명의 본산지로 근대인간의 지향점이다. 아버지 없는 사회, 그들만의 낙원을 꿈꾸는 근대개인/시민/고아들에게 그리스는 정치적 고향이자 미래인 것이다. 그러나 레이먼드 경이 바로

9) Alan Bewell은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이 “제국의 심리병리학을 그린 소설”이라고 말한다. *Romanticism and Colonial Disease*, p. 301.

이 민주주의와 문명의 이름으로 정복과 지배를 거침없이 논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평등 원칙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문제가 이들에게 별 고민 없이 편의적으로 해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레이먼드 경과 같은 국가의 아이들은 ‘고귀함을 타고난 영국’, ‘문명과 자유정신의 그리스’, ‘야만의 터키’ 등 특정한 방식으로 국가를 호명함으로써, 문명과 전쟁, 민주주의와 힘의 논리, 평등과 정복 등 모순적 요소들의 파열음을 아버지(국가)의 이름으로 지워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제국의 제국주의적 정복전쟁은 문명보다는 야만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전쟁에 대한 라이오넬의 반응이 이를 잘 보여준다. 레이먼드 경은 전장에 출정하면서 라이오넬에게 후방에서 퍼디타와 클라라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데, 라이오넬은 화를 내며 자기도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그는 야만적이던 어린 시절(“인간이라는 신성한 경계로 편입”하기 전)을 호명하면서, “고향 컴벌랜드 고원에 대고 맹세하건데 [...] 내가 경험했던 모든 부랑자와 약탈자의 이름으로 그대 곁을 지킬 것이고 그리스인의 대의를 위해 내 칼을 뽑아들 것이며 승리자로서 그대와 함께 이름을 올리리라”하고 외친다(187). 문명의 이름으로 야만을 응징한다는 제국주의의 혼한 수사와는 정반대로, 여기서 라이오넬은 야만과 폭력의 이름으로 문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셈인데 이는 제국주의 전쟁의 본질에 대한 정직한 기술이기도 하다. 이 대사는 또한 전쟁이라는 현실에서 문명 대 야만이라는 구도는 애초에 성립지도 않음을 드러낸다. 전쟁은 야만 대 야만일 뿐인 것이다.

애드리언 역시 국가의 아이들로 소환되어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대의로 하는 그리스 전쟁에 기꺼이 참여한다. 그러나 애드리언은 이 경험에서 국가/제국의 문제가 고아들의 연대에 만만치 않은 문제점을 던져준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한다. 그는 그리스-터키 전쟁이 던져 준 고민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자유라는] 특권을 방어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것은 당연해. 하지만 스스로를 기만해서는 안 돼. 터키인들도 인간이거든. 그들의 근육, 팔다리 하나하나가 우리와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고, 철이건 몸에서건 일어나는 경련 역시 그리스인과 똑같이 터키인들의 가슴과 머리에서도 느껴지는 것이거든. [...] 성 안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학살되었지 [...] 찢겨진 죄 없는 이들과 힘 없는 아이들이 지르는 비명 소리가 동료 인간들의 외침임을 내 모든 감각이 느끼지 못할 수 있었겠나? 그들은 남자였고 여자였으며 고통 받는 사람들이었지. 마호메트를 믿는 자 이전에 말이야. 영혼이 무덤에서 터번 없이 솟아오를 때, 본인들이 행한 선하고 악했던 행동을 제외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한 게 무엇이란 말인가? (170, 필자강조)

애드리언은 분명 죽어가는 터키인들을 같은 인간으로 느낀다. 심지어는 그들이 형제애로 하나 되어야 할 “동료 인간”임을 인지하기도 한다. 국가/제국이라는, 혹은 국가의 아이들이라는 “자기기만”이 없다면 몸의 모든 감각으로 죽어가는 이들의 신음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가 바로 나와 같은 동료이고 형제인 인간임을, 낙원의 동지임을, 가련하기 짝이 없는 ‘고아’임을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전쟁과 학살이라는 파괴적 맥락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 4. 전염병의 의미: 다시 고아로

라이오넬의 말이 언뜻 드러내는 제국/국가의 정복욕에 대한 진실, 그리고 애드리언이 도달하는 국가 너머의 낙원에 대한 인식은 일시적이다. 죽음의 순간은 짧고 비명과 신음은 순식간에 사그라들며 전쟁은



어느 지점에선가 끝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아이들이 국민 국가 단위의 근대정치의 모순, 폭력,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시공간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메리 셸리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를 서서히 황폐화시키는 전염병을 등장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전염병은 전 세계를 돌며 모든 형태의 인간 사회를 서서히 공격하고, 국가, 가족, 지역사회를 포함한 공동체들을 파괴해 나간다. 단말마의 믿음, 죽음, 파괴, 전쟁이라는 제한된 시공간은 이제 끝이 없는 것같이 느껴지는 긴 시간과 전 세계를 아우르는 확장된 공간으로 대체된다. 전염병이 지배하는 길고도 넓은 시공간 속에서, 파괴는 ‘언젠가는 끝날 사건’이 아니라 ‘끝이 없는 일상’이 되며 바로 이 시공간 속에서 국가의 아이들의 “자기기만”은 서서히 붕괴된다. 천천히 그러나 예외 없이 총체적으로 진행되는 소멸과 고립의 과정 속에서, 국가의 아이들은 그 누구의 아이도 아닌 천애고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엄청난 규모로 확산되는 전염병은 라이오넬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을 정치적·사회적인 차원 뿐 아니라 존재적, 생물학적, 역사적, 심리적 차원에서도 완전히 고립된 존재로 만든다. 그들은 이제 ‘고아’라는 용어가 다다를 수 있는 한계선의 최대치까지 철저히 고아가 되는 것이다. 애드리언에게 낙원의 의미를 날카롭게 환기시켰던 터키인들의 죽음은 이제 원저숲에서 끊임없이 반복해 일어나는 일상이 되며 매일 매순간 대면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이 소설에서 전염병이란, 국가의 아이들이 된 이들을 다시 고아 본연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여 근대정치의 주체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근본적으로 되물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에바드네라는 인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에바드네는 부모도, 가족도, 국가도 심지어 성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자유롭게 떠도는 고아의 전형이지만, 이 문제적 인물은 그 의미가 명확히 파악되지 못한 채 소설 중반 전염병에 대한 예언과도 같은 저주를

내리고 사망해버린다. 그녀는 어떤 국가에도 제대로 속하지 않는 채 국경을 가로질러 복잡하고 어지럽게 이동한다. 그리스의 공주지만 영국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결혼 후에는 터키 점령지인 콘스탄티노플에 거주하며,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었다는 이유로 반역죄에 처해지자 다시 런던의 빈민가로 숨어든다. 영국 국립미술관 설계 공모전에 참가하는가 하면 그리스와 터키 간 전쟁이 벌어지자 남장을 하고 그리스 군인으로 싸우며 결국 전장에서 숨진다. 이런 변화무쌍한 삶의 궤적에서 그녀가 어디에 속한 이인지를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녀는 끝내 국가의 아이로 포섭되지 않는다. 오롯이 혼자만의 논리와 힘으로 움직일 뿐이다.

에바드네는 또한 고아(근대개인)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불화를 드러낸다. 아이드리스나 퍼디타 같은 여성-고아들은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낙원을 꾸리며 사랑과 우정으로 남편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에바드네는 사랑의 대상과 결혼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며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레이먼드경과 애매모호한 연인관계를 갖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에바드네야말로 특정 국가, 문화, 지역, 가정에 명확히 소속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진정으로 고립된 자이고 따라서 ‘고아’라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존재인 셈이다. 그런데 고아들 간의 형제애를 표방하고 나선 근대정치는 에바드네와 불화한다. 근대적 형제애는 그녀와 같은 단독자를 결코 포용하지 못한다. 원저숲이라는 낙원에도 그녀를 위한 자리는 없다. 근대정치와 공동체는 그렇다면 애초에 누구를 향한 연대였던 것인가?

셀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고아-근대개인의 낙원건설을 위한 정치에 내재된 남성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한다.<sup>10)</sup> 실제로 혁명기 프랑스 사회에 만연했던 여성에 대한 혐오와 낭만주의의 남성

10) 에바드네는 그리스공주이지만 터키상인과의 결혼, 콘스탄티노플에서의 거주, 러시아와의 밀약 등을 통해 그리스보다는 터키와 더 밀착된 관계로 제시된다.

적 시선을 고려하면, 레이먼드 경의 파멸을 이끄는 에바드네는 파괴적 팜프파탈로 충분히 묘사될 법한 인물이다.<sup>11)</sup> 그러나 셸리는 이 여성을 그런 식으로 손쉽게 처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주에서 거지로 몰락했음에도 남에게 의지하느니 굶어죽는 편을 택하는 에바드네의 독립적 의지는 “존경과 연민”의 대상으로 묘사된다(153). 에바드네의 저주 역시 인물 자체의 불길함으로 쉽게 환원되지 않는다. 흔히 에바드네와 전염병을 동일시하는 독해들은 그녀가 죽어가면서 내리는 저주에 그 근거를 두곤 한다. 전장에서 죽어가는 에바드네는 옆에 들떠 다음과 같은 뜻을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린다. “[...] 내 목숨을 죽음에게 팔았다네. 그대가 나를 따라온다는 조건 하나만 걸었지. 불, 그리고 전쟁, 그리고 역병이 그대의 파멸을 위해 뭉치리라. 오 나의 레이먼드여. 그대가 안전할 곳은 세상에 없구나”(191). 에바드네의 이 말은 이후 레이먼드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후 일어나는 일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예언적이고 주술적 효과를 만들어 내며, 심지어는 이 저주로 인해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시작된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에바드네는 이 말을 할 당시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이고 이 대사는 저주라기보다는 신음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그리스 군인들 사이에는 이미 콘스탄티노플 안의 역병에 대한 소문이 널리 공유되고 있었음에 틀림없고 에바드네 역시 이를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에바드네의 맥락 없는 말은 사실상 전염병에 대한 소문과 공포가 전장에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게다가 이 말에 예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레이먼드 경이다. 그는 모두가 말리는데도 굳이 콘스탄티노플 안으로 들어가며 본인의 판단력 상실과 죽음충동을 “[그의] 운명을 에바드네의 운명과 합쳐주는 신비로운 인연”으로 돌린다(197). 비극적

11) Robert Darnton (1999), *The Great Cat Massacre: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U.S.A: Basic Books.

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에바드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레이몬드 경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서 에바드네는 남성의 이성을 전염시키는 동방의 여인이고 역병이며 저주일 뿐이다.<sup>12)</sup> 그렇기에 라이오넬은, 레이몬드 경이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하기를 꺼리는 그리스 병사들을 야단치면서 “미신”에 사로잡혀있다고 비난하자, “본인이 에바드네의 예언에 부여하는 믿음은 그러면 뭐라고 부를 것인가?”라고 꼬집는다(205).

에바드네는 단독자, 고아로서 근대개인의 형상을 완벽하게 구현하지만, 어찌면 바로 그 이유로 국가의 아이들로 포섭된 고아들의 정치적·사회적 연대로부터 고립되며 남성적,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 갖혀버린다. 그녀의 언어와 행동은 저주와 불길한 예언으로만 그 의미가 고정된다. 이 여성이야말로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이) 사회적 고아라는 개념에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근대적 연대와 사회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다. 근대정치와 사회에서 여성은 “오직 역설”이라는 존 스콧(Joan Scott)의 표현은 이런 의미에서 적확하다. 어찌면 소설 속의 사회는 에바드네라는 고아-근대개인이 던지는 역설적 문제의식을 마주하길 회피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전염병을 맞이해야 했는지도 모른다.<sup>13)</sup>

12) Lew는 당시 낭만주의자들이 동방에서 유래한 전염, 오스만 제국의 지배, 식민지 여성 등에 대해 가졌던 우려와 걱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소개하면서, 메리 셸리가 이 지점에서 낭만주의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고 본다. Joseph Lew (1998), “The Plague of Imperial Desire: Montesquieu, Gibbons, Brougham, and Mary Shelley’s *The Last Man*.” in *Romanticism and Colonialism: Writing and Empire, 1780-1830*, eds. by Tim Fulford and Peter Kitson, Cambridge: Cambridge UP, pp. 261-278.

13) Joan Scott (1996), *Only Paradoxes to Offer: French Feminists and Rights of Ma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5. 인간이라는 보편: 글로벌하지만 서구적이지는 않은

셸리는 또한 전염병을 통해 인간-시민이라는 근대정치의 ‘보편’이 전지구적 이동을 통해 전파되는 양상을 다각적으로 상상하고 사유한다. 전염병이란, 맥닐이 몽골제국의 이동과 흑사병 전파, 유럽의 아메리카 정복 등의 예를 통해 밝혔듯, 역사적으로 제국의 이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sup>14)</sup> 레이먼드 경의 콘스탄티노플 정복은 이런 역사적 예와는 반대로, 제국주의의 정복으로 인해 비서구의 전염병이 제국 자신에게 전파되는 역이동을 보여준다. 비웰(Alan Bewell)은 제국주의 침략의 결과로 비서구의 전염병이 오히려 제국을 점령해버리는 이 역방향 이동을 “역-식민주의”(reverse colonialism)라 부른다. 레이먼드 경이 열어젖힌 성문으로부터 동방의 전염병이 흘러나와 유럽 곳곳으로 퍼져 결국 지구 위의 모든 인류를 절멸시키는 모습은, 바로 전염병이 서구제국에 대해 수행하는 역방향 식민주의라는 것이다.<sup>15)</sup> 게다가 이 소설의 전염병이 촉발하는 이민, 이산, 인구이동의 방향 또한 역사적인 사실과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민자들은 북아메리카로부터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를 거쳐 영국으로 밀려들어오며 이 갑작스러운 대규모 이민이 영국사회에 불러일으키는 충격과 변화에 대한 묘사는, 실제 19세기를 전후로 영국으로부터 북미를 포함한 전 세계를 향하여 일어난 이민의 동학과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거꾸로 되짚어보게 한다(313).<sup>16)</sup>

14) William H. McNeill (1976), *Plagues and Peoples*, New York: Anchor Books.

15) Alan Bewell, *Romanticism and Colonial Disease*. p. 306. 비슷한 맥락에서 Barbara Jonson은 전염병이라는 보편 제국을 서구 제국주의/휴머니즘의 “뒤집힌 이미지”로 본다. “The Last Man” in *The Other Mary Shelley*, p. 264.

16) Sussman은 이 소설을 당대 국가주도의 이민이라는 문제와 연결하여 읽고 있으며 셸리가 국가 통제 밖의 인구 이동에 대해 급진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Charlotte Sussman (2003), “‘Islanded in the World’: Cultural Memory and Human Mobility in *The Last Man*.” *PMLA* 118 (2), pp. 286-301.

이 작품의 전염병은 분명 **글로벌하지만 서구적이지는 않은** 지구적 전파와 이동을 촉발한다. 그리고 셸리는 이 낯선 전파의 궤적을 상상하고 서사화한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궁극의 소멸을 의미하는 파괴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이 서사가 오히려 비서구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한 공포를 강화하는 오리엔탈리즘 서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소설에서의 전염병은 동양-야만-비서구에서 유래한 것처럼 보임에도 놀랍게도 서구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 전 지구에 미치는 전염병의 효과는 계급과 지위, 빈부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공평하게 만들어주며, 평등은 서구 근대민주주의의 핵심적 원칙이기 때문이다. 라이오넬은 이 병의 양상을 “통제되지 않은 바람의 파괴적 힘”이라고 묘사하는데(449) 이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도 상통하는 특징이다. 괴물이야말로 혁명이 상상한 가장 인간적인 존재였으나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인간사회에 대한 분노로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는 것처럼, 전염병은 근대 민주주의 정치의 목표인 ‘만민에 대한 평등’을 전 지구적으로 완벽히 실현하지만 모든 인간을 고통 속에 죽여가는 가련한 생명으로서 (폭력적으로) 동등하게 한다.<sup>17)</sup>

전염병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진정으로 동등해진다. 리랜드 같은 과격한 민주주의자가 호국 경이 되어도 실행하지 못한 사회의 완전한 평준화를, 전염병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잘) 수행하는 것이다. 대궐 같은 저택에 고아원 소녀가 들어가 살고 귀족은 붓짐을 매고 멀리 시골로 떠난다. 가난한 자가 더 우월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극한의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326).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위계도 사라진다. 죽음은 나이나 순

17) Hilary Strang은 『최후의 인간』에 근대 민주주의가 결국 정치라는 영역을 끝낼 수도 있다는 셸리의 걱정이 담겨 있다고 본다. 근대정치는 아감벤의 “헐벗은 삶”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인데 꺼져가는 생명이 정치적 요소가 되기에는 너무도 약한 것이라는 인식이 이 작품에 있다는 것이다. “Common Life, Animal Life, Equality: *The Last Man*” *ELH* 78 (2), pp. 409-431 (2011).

서를 가리지도 않는다(337). 모든 위계와 차이가 없어지고 공동체가 붕괴되는 무질서한 현실에서, 라이오넬과 애드리언은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영국을 떠나 혁명의 도시 파리와 공화사상의 선구자 루소의 제네바, 문명의 기원인 아테네와 로마로 향한다. 만인이 평등한 이 순간 공화주의/민주주의라는 근대 정치체제의 근원을 지리적, 역사적으로 역추적해 보는 것이다. 여행 내내 “인류라는 종족에게는 이제 지위의 차이라는 것이 없[으니]” “인간이라는 연약한 형태를 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종으로서의 형제애”와 “동지애”를 촉구하면서 말이다(309, 318)

그러나 이 호소는 잘 먹히지 않는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사람 수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에 호도되는 이가 있으며 파벌로 나뉜 이들의 다툼과 적의가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전염병이 수행하는 무지막지한 평등에는 도무지 정도나 범위, 혹은 예외가 없다는 점이다. 개인에게 고유한 개성마저도 필연적인 죽음 앞에서는 평준화되어 그저 “인간이라는 연약한 형태”만이 희미하게 남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 모두 평등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평준화시키는 평등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름다움과 강인함, 지혜로움조차도 부와 신분만큼이나 헛된 일이 될 것이었다.(336)

부, 신분, 위계, 권력 차원에서의 평등 뿐 아니라 개인을 독자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독특하고 귀한 특성들인 “아름다움”, “강인함”, “지혜로움”도 평준화되어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 하나의 존재가 인간임을 말해주는 징표는, 생명이 꺼져가는 한 순간으로 압축되어 나타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근대사회의 정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아들의 평등한 연대에 기반한 사회(낙원)가 제시하는 비전은 그저, 모두가 (평등하게) 죽어가는 그 한 순간이란 말인가? 셸리의 서사

에서의 정치적 보편성이란 글로벌하지만 서구적이지는 않은 복잡하고 뒤틀린 궤적으로 지구 위 인간 사회를 휩쓸며. 그것이 지나간 뒤에는 죽음만을 남긴다.

즉 셸리는 이 작품에서 서구 근대정치에 대한 사유에서 죽음이 핵심적인 요소임을 말한다. ‘인간’, ‘평등’, ‘정치’라는 근대적 보편의 근원과 구성에는, 죽어가는 생명의 형상이 뚜렷이 새겨져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셸리는 혁명기 낭만주의자로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면서도 민주주의 안에 (필연적으로) 함의된 비극적 정조를 편의적으로 지워버리지 않는다. 하이데거, 푸코, 데리다, 아감벤 등이 그로부터 100여년 후에야 근대민주주의와 근대인식론 안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죽음(혹은 꺼져가는 생명)과 정치의 상호구성관계를 논의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19세기 초반 셸리의 SF적 상상력이 갖는 통찰력의 깊이와 정직성을 짐작할 수 있다.<sup>18)</sup>

셸리는 정치적 평등의 지평선 어딘가에는 (죽어가는 생명이라는) 궁극적인 평등이 어른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대면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녀는, “개인은 죽어도 인간은 계속 된다”는 식의 사고를 문제시한다. “나의 개별성이 사라져도 [...] 우리라는 종이 이어진다는 것에 고양되어 죽음을 큰 공포 없이 여기게 하는” 상황이야말로 근대 정치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죽음을 사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를 사유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셸리는 이 작품에서 인물들이 당면하는 죽음과 상실의 경험들을 하나 하나 지루할 정도로 자세히 묘사하며 공을 들인다.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다는 식의 숫자적 환원으로는 그 연약한 보편의 정치적 의미

18) 푸코의 “생명정치”(biopower), 아감벤의 “헐벗은 삶”(barelife), 데리다의 “인간의 종말”(end of man)을 각각 참조. M. Foucault (2009),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G. Agamben (1998),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Stanford UP; J. Derrida (1982), *Margins of Philosophy*, trans. by Alan Bass. Great Britain: The Harvester Press.



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9)</sup>

## 6. 나가는 말

『최후의 인간』은 마지막에 단 하나의 개인만을 남긴다. 전염병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파괴”를 통해 “한때 바쁘고 복잡했던 지구를 소리 없는 고독”으로, “단독성이라는 외로운 상태”로 만든다(281). 근대정치의 주체로 설정된 근대개인, 즉 고독하고 고립되었으며 버려진 고아상태로의 완벽한 회귀인 것이다. 그런데 이 정치적 태초로의 회귀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가련하고 자유로우며 고립된 고아상태란 사실상 인간이 아닌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고아상태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단독자란,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초인”(übere Mensch)이며 『프랑켄슈타인』의 끔직한 괴물이다.

라이오넬은 최후에 남은 단 한 명의 인간이지만, 그는 바로 그 이유로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는 하나의 개별 생명체로 존재할 뿐 그가 대표할 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혼자만 남게 되자 컴벌랜드의 고원에서 경험한 거친 야수의 삶이 점차 그를 다시 지배하게 된다. 혹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 라이오넬이 애초에 인간이 아니었기에 최후의 인간이 된 것이다. 사실 그는 소설 속에서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획득한 유일한 존재이며, 따라서 소설 중후반에는 이 면역으로 인해 이미 다른 여타의 인간과 동일한 자연법칙에 종속되지

19) 그리스 전쟁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무시되고 점호명부에 채워진 숫자가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을 목격한 후 느끼는 애드리언의 괴리감도 이런 생각을 반영한다(170-1). Melissa Bailes는 죽음을 다루는 셸리의 방식이 개개인의 운명을 무시하는 과학적 일반화에 대한 비판이라고 읽기도 한다. “The Psychologization of Geological Catastrophe in Mary Shelley’s *The Last Man*.” *ELH* 82 (2), pp. 671-699 (2015).

않는 초인/괴물이었던 셈이다.<sup>20)</sup>

완벽히 홀로인 단독자라는 존재는 개념적 차원에서도 초인/괴물과 긴밀히 연결된다. 아버지의 보호나 권위 없이, 심지어 아버지라는 실물 없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괴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괴물성은 신적인 것과 닿아있다. 본인이 스스로를 창조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대 민주주의의 정치는 새로운 인간 사회를 세우기 위해 애초에 (인간이 아니라) 초인 혹은 괴물을 주체로 설정한 셈이다. 셸리의 SF에서도 현실의 21세기에도 근대정치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은, 초인, 괴물, 그리고 여성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존재들에 의해 끊임없이 정치적 주체에서 배제되기 때문이 아닐까?

---

20) 그가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 장면은 이 소설의 핵심 장면 중 하나이다. 라이오넬은 아들 알프레도가 전염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와중에, 병에 걸려 신음하며 쓰러진 “반쯤 벌거벗은 흑인”과 서로 영키게 되고 이 흑인이 내뿜는 숨결이 라이오넬의 몸속으로 스며든다. 그러나 라이오넬은 기적적으로 이 병을 이겨내고 생존한다(356-7). 유일하게 흑인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소설에 인종적 맥락을 더해주면서 비평적 주목을 받아왔다. Mellor 참조. 그러나 이 만남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줌에도 불구하고 라이오넬이 면역을 갖게 되는 명확한 이유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는다. Peter Melville 참조. “The Problem of Immunity in *The Last Man*.” *SEL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47 (4), pp.825-846 (2007).

## 참고문헌

### 【논 저】

- 박미경(2012), 「영국 낭만주의의 정치성: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에 재현된 공화주의와 전염병의 제국」, 『안과밖』 32.
- 박선주 · 오경환 · 홍양희 엮음(2014), 『고아, 죽보 없는 자: 근대, 국민국가, 개인』, 서울: 책과함께.
- Agamben, Giorgio (1998),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Stanford UP.
- Bailes, Melissa (2015), “The Psychologization of Geological Catastrophe in Mary Shelley’s *The Last Man*.” *ELH* 82 (2).
- Bewell, Alan (1999), *Romanticism and Colonial Disease*,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P.
- Darnton, Robert (1999), *The Great Cat Massacre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U.S.A: Basic Books.
- Derrida, Jacques (1982), *Margins of Philosophy*, trans. by Alan Bass, Great Britain: The Harvester Press.
- Fisch, Audrey A. (1993), “Plaguing Politics: AIDS, Deconstruction, and *The Last Man*.” in *The Other Mary Shelley: Beyond Frankenstein*, ed. by Audrey A. Fisch, Anne K. Mellor, and Esther H. Schor, New York and Oxford: Oxford UP.
- Foucault, M. (2009),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unt, Lynn (1992), *The Family Romance of the French Revolution*, Berkeley and LA: California UP.
- Jonson, Barbara (1993), “*The Last Man*” in *The Other Mary Shelley: Beyond Frankenstein*, ed. by Audrey A. Fisch, Anne K. Mellor, and Esther H. Schor, New York and Oxford: Oxford UP.
- Lew, Joseph (1998), “The Plague of Imperial Desire: Montesquieu, Gibbons, Brougham, and Mary Shelley’s *The Last Man*.” in *Romanticism and*

- Colonialism: Writing and Empire, 1780-1830*, eds. by Tim Fulford and Peter Kitson, Cambridge: Cambridge UP.
- McNeill, William H. (1976), *Plagues and Peoples*, New York: Anchor Books.
- McWhir, Anne (2002), "Mary Shelley's Anti-contagionism: *The Last Man* as 'fatal narrative.'" *Mosaic: A Journal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Literature* 35 (2).
- Mellor, Anne K. (1988), *Mary Shelley: Her Life, Her Fiction, and Her Monsters*, New York: Methuen.
- Melville, Peter (2007), "The Problem of Immunity in *The Last Man*." *SEL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47 (4).
- Paley, Morton D. (1993), "The Last Man: Apocalypse Without Millennium." *The Other Mary Shelley: Beyond Frankenstein*, ed. by Audrey A. Fisch, Anne K. Mellor, and Esther H. Schor, New York and Oxford: Oxford UP.
- Scott, Joan (1996), *Only Paradoxes to Offer: French Feminists and Rights of Ma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helley, Mary (1994), *The Last Man*, New York and London: Bantam Books.
- Strang, Hilary (2011), "Common Life, Animal Life, Equality: *The Last Man*." *ELH* 78 (2).
- Sterrenburg, Lee (1978/79), "The Last Man: Anatomy of Failed Revolution." *Nineteenth Century Fiction* 33.
- Sussman, Charlotte (2003), "'Islanded in the World': Cultural Memory and Human Mobility in *The Last Man*." *PMLA* 118 (2).

원고 접수일: 2020년 12월 17일

심사 완료일: 2021년 2월 8일

계재 확정일: 2021년 2월 9일

ABSTRACT

---

Democracy and Plague in Mary Shelley's *The Last Man*

Park, Seonjoo\*

This study examines Mary Shelley's vision on modern politics, community, and the individual in her SF novel *The Last Man*. This novel focuses on the trope of the orphan to show how the individual, the modern agency of politics, and modern politics are constituted. Characters are presented as orphans, embodying the independent, vulnerable, and isolated state of the modern political being, and they make social bonds based on fraternity, sympathy and friendship, building the foundation of the modern community of the nation-state. At some point, orphans become the children of the State, and they start to conquer the East in the name of father/empire/civilization. Plague throws these children of the State back to the original state of orphans again making everyone alone, destitute, and vulnerable with its ruthless principle of equalization. Plague also distorts the universality of imperialism with its more universalizing figure of a dying man. In Shelley's thorough examination of modern politics, equal democracy is inevitably built on the figure of death; human society is built on paradoxes of exclusion/inclusion; and the modern agency of the in-

---

\*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ha University

dividual is either Nietzsche's übermensch or the monster in *Frankenstein*. Shelley's ambiguity towards the modern world in the post-revolutionary era is reflected in the paradoxical role of the orphan in the novel.